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사진으로 피어나는 눈에 담기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자. '눈에 담기' 만으로는 너무나 아쉬운 풍경이 넘쳐난다. 언제부터인가 일상을 나도 모르게 사진으로 남기는 기록 아닌 기록을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매력적인 사진이 쌓여간다. 참 좋은 세상이다. 사진을 찍어서 인화할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서 상대에게 보내거나, 보정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카카오스토리, 페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해 사진첩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 많다.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사진을 정리하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왔다. 우연히 시작한 '눈에 담기'와 사진 작업은 나에게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페북을 통해 '2020-31호 눈에 담기'까지 시리즈로 한 편의 '시와 함께 저장하는 글쓰기'는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다양한 색깔의 백합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아름답다 못해 눈이 부시다. 백합의 향연을 눈에 담다 보니, 사진이 '실물보다 아니다'라는 아쉬움이다. 비싸고 좋은 사진기는 아니지만,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은근 칭찬이 들려오고, '사진을 전문적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생각 없이 바라다보면
손바닥으로 가리려 가리려 해도
눈이 부셔 어쩔 수 없이, 고개 들어
눈에 담은 청춘의
하얀 노랑 빨강 물감이
가득가득 물들고 물들면,
지워지지 않는
너는,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새롭게, 피어난
다양하고 복잡한 저마다의 꽃이다
-박여범〈꽃〉 전문-

학교의 작은 공간, 텃밭이다. 그곳을 터전 삼아 자라나는 '토마토', '상추', '가지', '방울토마토', '고추', '부추', '고구마'를 만날 수 있다. 이 녀석들은 우리 아이들 크는 것보다 더 숨이 가쁘게 쑥쑥 자라난다. 봄날을 지배했던 수많은 직박구리 가족의 온갖 배설물을 마다하지도 않는다. 텃밭의 주인들은 의연하게 성장하고 있다.

생각 없이 바라다본다. 정말 작고 볼품없이 다가온 과일이나 채소에 조금의 '관심'과 '애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자. 눈이 부시고 알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게다가, 색깔도 노랑, 빨강, 하얀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그 누구도 감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위풍당당함이 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에 눈을 담아보자.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지는
직박구리의 재잘거림과 냄새나는
배설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포시 쪽방에 내려온 고되고
힘든 간이역에 서늘한 영혼을
부여잡고 고운 미소를 기다린다
-박여범 〈성장〉 전문-

오늘은 비가 내린다. 장맛비다. 유난히 더웠던 시간의 꺽임 속에서도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랑스러운 카메라에 너무나 자연스레 모습을 취해 준다. 그리고 두 팔 벌려 찍박구리의 더러운 배설물도 가득가득 품어주는 텃밭이라는 공간을 바라본다. 그곳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우리들의 열매를 향한 꽃이다.

많은 시간, '눈에 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성장도 눈에 담는 모든 것들과 함께할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한번 부딪혀 보자.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그 사람만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긍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은 '긍정'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쑥쑥 자라는 것이 과일이고, 채소며, 우리 아이들이다.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늙어갈 것이다. 이 당연한 자연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헛된 시간 낭비다. '눈에 담는'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은 없다. 나름대로 필터링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겁을 먹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다.

많은 생각이 머물고, 떠나고, 새로운 놈들이 다가오는 삶이다. 적당한 부대낌은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설령, 눈에 담는 대상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삶, 그 삶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저마다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누구나 하나씩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서로 나눠 가지며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모르는 척, 그 '채움'을 수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저마다의 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으로 담아내고 기억하고, 함께 누리는 '눈에 담기'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푸틴 장기집권 반대' 시위 여성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시위에서 한 여성이 "반대에 한 표를"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96% 개표한 결과 78.05%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개헌이 이뤄지면 푸틴 대통령의 35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독자제언

끼어들기는 교통사고의 주범

운전을 하다보면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불쾌하고 화나는 감정을 느껴봤을 것이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에 이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위반항목으로 정당한 차로 변경이 아닌 빨리 가기위해 앞 질러간 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 차로가 정체일 경우 교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정체중인 차량들의 간격이 벌어진 틈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차량의 정체가 심한 도심지 도로나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위반사항으로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에 의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는 운전자간 시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보복운전의 대부분이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나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법규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고작 몇분 더 빠르게 가려고 끼어들기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정체를 가중하게 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도착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기적인 운전습관을 지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양보운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1기동대 경장

사 설

중국 전기차 바이튼 경영난 심각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 전북도는 미래 발전을 약속한 주요 현안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가 최근 들어서 유력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밝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때 아니게 복병을 만났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인 바이튼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바이튼의 경영난을 두고 걱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이튼과 위탁 생산을 체결한 명신에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신은 두루 잘 알고 있다싶이 군산형 일자리의 한축을 담당한 기업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다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몇몇 기업들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다. 지역 발전을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 전북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했다. 군산형 일자리가 타격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정부에게 해법을 물어보아야 한다.

본보는 지난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것을 밀고 나가야겠다고 여러 번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의 바이튼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중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것은 명신의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군산형 일자리의 성격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 어려운 때에 전북도는 군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열어야했다.

물론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바이튼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서 아주 낙심할 일은 아니다. 완주군에 전국 최초로 수소자동차를 위한 충전소가 들어섰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수소자동차 생산도 군산형 일자리의 한 축이다. 이제 그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어쨌든 내명년까지 미루지 말고 생산 작업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가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경제의 회복을 위해 악착같이 덤벼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어려운 때에 헌걸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고용 안정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전북도의 어깨가 갈수록 무겁게 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IMF때 이상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는 청년 고용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겠다. 젊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핑계대는 이들을 멀리서 팔짱을 낀채 방관해선 안된다. 전북도는 근로자와 함께 가려는 자세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음을 두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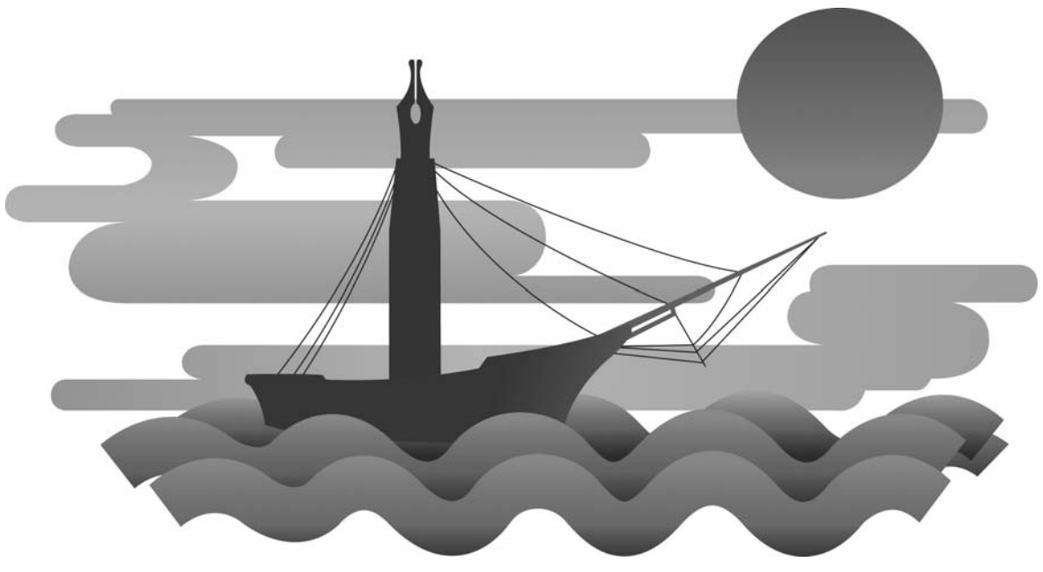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이유는 뚜렷하다. 호남통계청이 때때마다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난감하다. 전북도는 먼저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용하니 별 일이다. 젊은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둔한 탓이다. 전북도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물론 시군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 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여기 다시 언급하거니와 전주시가 저번에 보여준 것들은 신선한 감동이었다.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도 감동시켜 특별히 언급케 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의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지만 함께 가자는 목소리는 그 울림이 컸던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 나온 '착한 집세 운동' 또한 그 연장 선에 감동의 울림이 컸다.그런데 현실은 낮은 수준의 일자리마저 줄고 있으니 답답하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고용의 현장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마저 힘들어지고 있는 게 팩트이고 속내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 문제는 한두 번 개선 해결을 모색해보고 그만 둘 일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진정성과 실력 발휘가 관건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포스트 코로나 를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그 약속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고용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